

5. 고사/한문 구절

유형 : 역대 수능, 모평에서 고사, 한문 구절의 사용을 묻는 문제 총 집합

역대 수능, 모평 출제 횟수 : 7회 + α

출제 경향 : 지문에서 고사나 한문 구절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만 파악하면 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고사’를 사자성어로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고사는 고사성어가 아니다. 고사는 ‘유래가 있는 옛날 이야기’를 말한다.

사례 1. 2009 수능 48번 문제 ②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고사, 한문 구절’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혼인은 인륜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

|선지| 한문 구절을 끌어 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한다. (O)

※ 분석 : ‘인륜대사(人倫大事)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겪는 중대한 일’을 말한다.

사례 2. 2005 수능 39번 문제 ⑤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고사, 한문 구절’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를 자적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외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이 되고 하(雅)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랴.

|선지| 예스러운 말투와 한자어의 사용으로 고풍스러움을 드러낸다. (O)

※ 분석 : 지문에 유위전변(有爲轉變), 속(俗), 아(雅) 등의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례 3. 2002 수능 46번 문제 ②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고사, 한문 구절’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내가 이 산중에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하여 몇 해가 되었으되 오늘 처음 보는 터에 나를 어찌 알고 무엇 하려 불렀느냐?” 주부가 대답하되, “유붕(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역낙호(不亦樂乎)가 공자님 말씀인데. 어이 그리 무식하여 처음 본다 괘시하니 인사가 틀렸는데.”

선지

설화에는 별로 없는 한문투 어구나 표현이 사용되었어 (○)

※ 분석 :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 ‘유붕(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역낙호(不亦樂乎)’ 등의 한문 구절이 사용되었다.

사례 4. 2004 09 모평 57번 문제 ⑤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고사, 한문 구절’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가련한 흥보 신세 지성으로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님 전에 비나이다. 형제는 일신이라 한 조각을 베면 둘 다 병신 될 것이니 외禦其侮*를 어이 하리. 동생 신세 고사하고 젊은 아내 어린 자식 뉘 집에 의탁하여 무엇 먹여 살리리까. 장공예(張公藝)는 어떤 사람이고 하니 구세(九世) 동거하였는데 아우 하나 있는 것을 나가라 하나이까. 척령(鶴鶩)*은 짐승이나 금란지의(金蘭之誼)를 알았고 상채(常棣)*는 꽃이로되 담락지정(澹樂之情)을 품었으니 형님 어찌 모르시오. 오륜지의를 생각하여 십분 통촉하옵소서.”
 놀보가 분이 상투 끝까지 치밀어 그런 야단이 없구나.
 “아버지 계실 적에 나는 생판 일만 시키고서 작은아들이 사랑웁다 글공부만 시키더니 너 매우 유식하다. 당 태종은 성주(聖主)로되 천하를 다투어서 그 동생을 죽였으며, 조비(曹丕)는 영웅이나 재주를 시기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나 같은 초야 농부가 우애지정을 알겠느냐.”

선지

⑤ 흥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고사를 인용하자, 놀보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고사를 이용하여 반박하려 하였다.

※ 분석 : 흥보는 ‘장공예라는 사람은 구대가 한 집에서 살았는데 어찌 같은 가족을 집에서 내쫓으려 합니까?’라고 장공예의 고사를 들고 있다. 이에 놀보는 ‘태종과 조비 같은 영웅들도 아우를 죽였다’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고사를 이용하고 있다.

- 장공예의 고사

구대(九代)가 한 집에서 살았는데 혹자가 와서 말하기를
 “3대도 한 집에서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9대를 한 집에서 살수가 있는냐?”
 하고 묻자 공예는 필목을 꺼내놓고
 “참을인(忍)자와 일백백(百)자를 쓴다. 참아라 넘어오는 간도 삭여서 넘겨라”라고 말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장공예의 고사를 들어"백번 참는 집안에는 큰 화평이 있다"고 했다.

사례 5. 2009 수능 48번 문제 ⑤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고사, 한문 구절’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온 지라.”
선지	⑤ 대화 속에 <u>고사를 인용하고 있다.</u> (O)

※ 분석 : 시백은 ‘한 무제가 선술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사례 6. 2010 06 모평 43번 문제 ④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고사, 한문 구절’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토끼가 기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몹쓸 놈야. 왕명이 지중커늘 내가 어이 기만하랴. 옛말을 네가 못 들었느냐. <u>하나라 걸입금은 가혹한 정치로 자신에게 올바른 소리를 한 용봉을 함부로 죽여 얼마되지 않아 나라가 망했다.</u>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의 나라서 원귀 되고 너의 용왕 백 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 한낱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 옛대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내 보아라.” * 용봉 : 중국 하나라의 신하로, 걸왕에게 간언하다 죽임을 당함
선지	④ 의도적으로 <u>고사(故事)를 오용하여</u> 긴장감을 낳는다. (X)

※ 분석 : 위 지문에서 토끼는 ‘하나라 걸입금이 자신에게 간언하는 용봉을 함부로 죽여 나라가 망했다’라는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입금이 올바른 소리를 하는 토끼를 죽인다면 걸입금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따라서 토끼는 고사를 잘못된 고사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알맞은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사례 7. 1998 수능 41번 문제 ②번 선지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고사, 한문 구절’을 파악하면 된다.

지문	<p>애급(埃及)이 인종을 멸망당한 것은 서방에 밝은 전감(前鑑)이 있고 유구(琉球)가 일본의 고을이 되고 만 것은 동양에 있어진 전철(前轍)이 있도다.</p> <p>* 애급(埃及) : 이집트 * 전감(前鑑) : 거울로 삼을 만한 지난 일</p> <p>* 유구(琉球) : 지금의 오키나와 일대에 있었던 나라</p>
선지	④ <u>고사를 사용하여</u> 효과를 높이고 있다. (○)

※ 분석 : 지문에서 ‘이집트의 멸망과 유구의 식민지화’라는 고사를 사용하고 있다.